

파빌리온 건축을 통해 본 지역성 표현특성에 대한 연구 -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파빌리온을 중심으로

서규덕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A study on the regional expression through pavilion architecture - focused on the YAP pavilion

Kyuduhk Seo

Department of Architec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동시대 건축의 여러 형식의 건축물들 중에서도 형태적, 재료적, 구조적 실험의 장이 되고 있는 건축형식인 파빌리온 건축 중 한 가지 주제 아래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의 5개 다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파빌리온 건축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문화적 환경적 토양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지역성을 고찰하는 데 있다. 근대건축 이후 현대건축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로 분석 및 연구되어지고 있는 지역성 분석 기준의 척도를 설정하기 위해 지역성 표현유형의 개념과 분류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상징적, 구축적, 맥락적, 감촉적, 환경적, 이상 5가지 표현방식의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이 5가지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각기 다른 나라에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완공된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파빌리온 건축에 있어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 양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같은 주제로 계획되고 지어지고 있는 파빌리온이라는 좁은 범위의 건축형식을 통해서도 각기 다른 나라의 문화가 표현되어 지는 특징적인 지역성의 표현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Young Architects Program" pavilion architecture, where many formal, material, structural challenges were examined, was selected for an analysis of the regional expression of various culture in five countries in different continents. For comparative analysis, five criteria of evaluation, symbolic, tectonic, contextual, tactile, environmental, were set through an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Through these five criteria, the methods of regional expression of architectural concepts in five different countries were compared to indic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fferent culture in same theme and type of pavilion architecture.

Keywords : regional expression, regionality, pavilion architecture, YAP, MOMA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파빌리온은 사전적의미로 나뭇잎을 뜻하는 라틴어 어원 (papilio)을 갖고 있으며 건축용어로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주건물의 부속으로서 분리되어 위치한 보조적인 건물을 의미하며 주로 유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기능을 갖는다.[1] 많은 장식 위주의 정원 파빌리온들이 동서양의 전 지역에서 만들어져 사용되었고, 특히 서양근대건축에서의 파빌리온이라는 용어는 운동장에서 장비를 보관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공간으로서의 건물로 한정되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파빌리온의 범위가 확장되어 천막, 여름별장, 무도회장, 공연무대, 큰 건물에 연결되어 있는 별관 등을 의미

본 논문은 2015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

*Corresponding Author : Kyuduhk Seo(Kangwon National Univ.)

Tel: +82-33-250-6210 email: kyuduhk.seo@kangwon.ac.kr

Received October 16, 2017

Revised (1st November 13, 2017, 2nd November 24, 2017)

Accepted February 2,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하기도 하게 되었다.

이처럼 파빌리온 건축은 기능적 제약에서 자유롭고 임시적으로 건립되는 특성도 지니고 있어 형태적, 재료적, 구조적 실험의 장으로서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어 여타 건축물들의 형식보다도 가장 앞선 동시대 건축의 시대성 및 새로운 기술적 공간적 경향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근대건축 이후 현대건축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석, 연구되어지고 있는 지역성의 표현양상에 대하여, 동시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건축적 표현이 시도되어지고 있다 할 수 있는 건축의 형식인 “파빌리온” 건축 중 뉴욕현대미술관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 프로그램의 각 나라 당선작들을 지역성의 표현방식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른 문화적 지리적 토양에서 나타나는 지역성 표현특성의 차이에 대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파빌리온 건축물들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뉴욕현대미술관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의 당선작들로 한정하여 건축언어를 분석하고, 시간적으로는 지역성의 표현방식 차이를 나라별로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에 주최국인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이 합류하게 된 2010년 이후로 그 기간을 한정하여 현재까지 완공된 각 나라의 당선작들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다.

서론에서 첫째, 파빌리온 형성과 배경,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역성 표현에 관련하여 고찰하고 둘째, 지역성의 표현특성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표현방식의 분석항목을 도출한다.

본론에서 첫째, 각 나라별 연도별 당선작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지역성 표현특성 분석항목에 따른 국가별 특성을 비교한 종합적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표현특성 유형의 분류 및 결론을 유추해본다.

2. 파빌리온 건축과 지역성

2.1 파빌리온 건축; 젊은건축가프로그램

파빌리온의 역사는 1775년 마크 앙트완 로지에의 “Primitive hut”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건축이 생성된 원초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 임시 혹은 반영구적인 구조체에 의해 만들어진 가변적인 공간인 파빌리온 건축은 이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정원등과 같은 외부공간에 주로 설치되는 임시 혹은 반영구적인 구조체로서, 간결한 캐노피 형식의 넓은 단일공간을 일컫던 파빌리온은 서양의 근대시기에 축제나 정원 연회 등의 일시적인 행사를 위해 캔버스 천막으로 건립되었던 것을 “파빌리온”이라고 명명한 것이 시초이며 17세기 후반에 들어 좀 더 견고한 형식과 구조의 영구적 정원 건물에도 파빌리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현대에 와서 파빌리온 건축은 전시 및 관람시설의 용도로서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Mies Van der Rohe 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으로 대표되는 국제박람회 EXPO 파빌리온 건축과 뉴욕현대미술관(MOMA)의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YAP; Young Architects Program)으로 대표되는 미술관 파빌리온이 주요한 사례이다.

그중에서도 뉴욕현대미술관의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 1998년 최초로 시작되어 2017년 현재 20년째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신진 건축가를 대상으로 혁신적 프로젝트를 발표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 하에, 매년 쿤스 현대미술관 분관의 중정을 사이트로 그늘, 좌석 및 물 3가지 기본조건외 임시 옥외 설치를 위한 독창적인 파빌리온 디자인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게 될 당선작의 선정을 위해서, 바로 전 연도 당선자를 포함한 학계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추천을 받은 50여개 신진 건축팀들의 작품을 1차에 5팀을 선별하고 2차에 프리젠테이션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고 있다.[2]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2010년까지 12년 동안 미국 한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던 프로그램이 2010년 이후부터는 칠레 산티아고의 “Constructo”, 이탈리아 로마의 “MAXXI”, 터키 이스탄불의 “Istanbul Modern” 그리고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까지 프로그램의 영역을 남미, 유럽, 아시아를 포함하는 전세계 5개국 주요 도시 문화거점으로 확대함으로써 단순한 임시건축물의 실험적 가치를 넘어 다양한 지역의 독창적인 문화 및 동시대 공간의 특성과 디자인의 트렌드를 비교해 볼 수 있게 되었다.

2.2 표현방식으로서의 지역성 선행연구

파빌리온의 지역성 표현방식에 대한 분석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현대건축에서의 지역성 표현에 대한 근래 선행연구 논문 4편 “성혁재, 윤도근(1998), 현대 지역주의 건축의 주제와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신정훈, 성인수 (2000), 지역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현대 건축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박순옥, 송대호, 박춘근 (2000) 현대 지역주의 건축의 지역성 표현 해석에 관한 연구”, “김세영 (2013), 현대건축에서 나타난 지역성의 지속 가능한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을 중심으로 분석의 키워드를 추출하면 아래 [표 1]과 같이 [장소성, 맥락성, 연속성, 구축, 감촉성, 상징성, 전통성, 환경성, 형태, 재료]로 열거할 수 있다.

Table 1. Precedent study analysis on regionality

year/name	title	keyword
1998/ Sung, Hyuckjae	the architectural theme & expressions of contemporary regional architecture	context, continuity, tectonics, tactility
2000/ Shin, Jung-Hun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the contemporary Korean architecture through the viewpoint of regionalism	sense of place, continuity, sensibility, context
2000/ Park, Soon-Ok	the interpretation of locality expression in the contemporary regionalism architecture	traditional, environmental, form, context
2013/ Kim, Seyoung	the sustainable values of regionality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environmental, context, form, mate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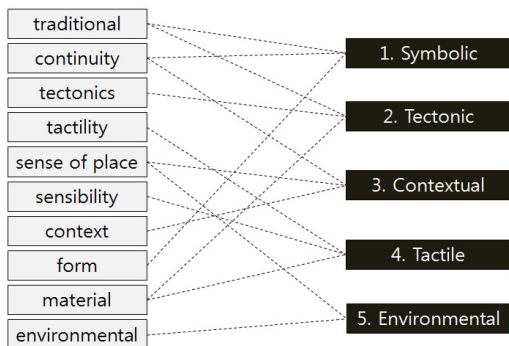


Fig. 1. five criteria for regional expression analysis

이들 10개의 키워드 중에서 각 4개의 논문에서 유사한 의미로 다루고 있는 내용의 표현방식을 통합하여 정

리하여 보면 아래 [그림1]과 같이 “상징적, 구축적, 맥락적, 감촉적, 환경적” 5가지로 지역성 표현방식 분석의 척도를 설정할 수 있다.

첫 번째, “상징적 표현(1. Symbolic)”은 전통성(traditional), 연속성(continuity), 형태(form), 세 가지 키워드들로부터 추출된 것으로 그 지역의 정체성으로서의 역사적 요소를 오랜 시간에 축적된 문화로서 정의하는 전통을 형태적으로 재현하거나 연속성 있는 매개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근대건축이 과거 양식을 거부하면서 단절된 것에 대한 과거와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5] 두 번째, “구축적 표현(2.Tectonic)”은 전통성(traditional), 구축(tectonics), 재료(material), 세가지 키워드가 통합된 것으로, 자연의 인자와 지역문화의 특성이 구축형태 표현의 기초가 됨으로써 지역성을 표출하는 것으로 기술구조와 생성구조가 동시에 내포되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여 건축의 내재적이고 고유한 속성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설명된다.[6] 세 번째, “맥락적 표현(3.Contextual)”은 연속성(continuity), 장소성(sense of place), context(맥락) 이 통합된 의미이다. 주변환경과 반응하는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장소성과 관계하고 장소성은 연속성에 의해 현재라는 시간적 의미를 부여받아 표현된다.[4] 네 번째, “감촉적 표현(4.Tactile)”은 감촉성(tactility), 감각성(sensibility), 재료(material)의 통합으로 시각적인 감각뿐 아니라 인간의 직관이나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촉각적인 면을 강조하여 인간과 접촉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기능이나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지 않고 인간에게 보다 접촉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촉각적으로 부각시킨다.[5] 다섯 번째, “환경적 표현(5.Environmental)”은 장소성(sense of place)을 환경적(Environmental)이라는 키워드로 포괄한 표현으로서 세 번째의 맥락적 표현이 연속성에 기반을 둔 반면 환경적 표현은 기후 및 자연지형적 요소들의 건축적 적용 및 순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의 풍토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버네쿨러(vernacular) 건축적 시도라고 볼 수 있다.[7] 본문인 3장에서는 위에서 정의된 5가지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완공된 각 나라의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파빌리온 당선작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성의 국가별 표현방식을 비교하여 본다.

3. YAP 파빌리온의 지역성 표현특성








3.1 뉴욕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뉴욕 당선자들의 공통점을 분석해보면 첫 번째, 이민 역사에서 비롯된 다양한 민족문화가 공존하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매년 선정되는 건축가들 출신도 아시아, 중남미, 유럽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건축가들이며 이로 인해 어느 한곳에 국한된 지역성의 표현을 공통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2016년 작업 “Weaving the Courtyard”의 패턴과 작업방식이 건축가의 출신지인 멕시코의 직조공예방식을 차용하고 있어 멕시코의 전통 색감을 “상징적”으로 직조공예를 “구축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다양한 문화가 복합적으로 표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방문객의 참여를 유발하는 “감촉적” 표현방식을 말할 수 있는데 대표 사례로 2010년 “Pole Dance”와 같은 경우 중정 전체를 탄성이 강한 재질의 기둥에 네트를 고정시킨 후 그 위에 고무공들을 위치시켜 방문객들로 하여금 이를 작동시킴으로 환경과 인간의 동적반응을 유효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그리고 2015년 “COSMO”에서 일반적으로 숨겨있는 물 정화과정의 기계적 장치를 디자인 요소로 노출함으로써 이 또한 방문객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양방향 소통의 요소로 적극 이용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전통적 방식보다는 첨단기술이나 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환경적”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12년 “Wendy”에서 공기정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Titania 나노피복소재나, 2014년 “Hy-Fi”에서 적용된 친환경 유기재료 벽돌을 쌓아 유기적 형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파라메트릭 디자인 공정, 그리고 2015년 “COSMO”에서 수질정화 처리공정 기계를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 것에서 쉽게 분석하여 볼 수 있다.

3.2 산티아고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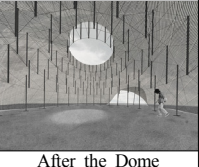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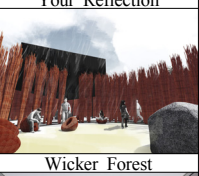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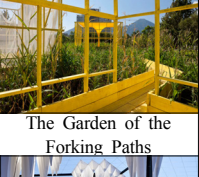


칠레 산티아고의 파빌리온 건축에서는 서양 고전건축의 “상징적” 표현방식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2011년 “Water Cathedral”에서 수직으로 매달린 삼각형의 콘에 의해 구성하고자 하는 성당의 네이브 공간, 2012년 “The Garden of the Forking Paths”에서 프랑스 바르세이유 궁전의 정원구성을 참조한 미로의 정원 그리고 2016년 당선작 “After the Dome”의 제목에서 말하고 있

Table 2. Young Architects Program - New York

Year	Image/ Project name	concept/ contents
2016	 Weaving the Courtyard	colorful “cloud” layered in varied densities reframing visitor’s interact with the landscape and sky a system of woven rope canopy and earthwork
2015	 COSMO	trigger awareness by enjoying exposed system of water purification movable artifact made out of customized irrigation components,
2014	 Hy-Fi	cutting edge parametric design and engineering process with low-tech biotech circular tower made out of the organic bricks
2013	 Party wall	vertical landmark operated by environmental elements recycled wood facade affixed to a steel frame balasted by water filled containers
2012	 Wendy	symbolic expression of the boundaries of architecture, crafts environment not just a space titania nanoparticle sprayed fabric for air pollution supported by the scaffold
2011	 Holding Pattern	spatial definition by the minimal treatment of shades and furniture objects than physical interference suspended canopy of ropes and sails, wooden outdoor furniture recycle for community use
2010	 Pole Dance	experience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human action and environmental factor interconnected system of scattered 9m fiberglass poles and bungee cords with polyester net

는 지배적인 돔형태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파빌리온이 위치한 도시인 칠레의 산티아고가 남미 대륙임에도 16세기부터 3세기 동안 스페인에 의해 점령되었던 역사에서 비롯된 특유의 유희피안 문화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이나 이탈리아의 파빌리온 건축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기술이나 재료에 대한 관심보다는 장소성에 기반을 둔 목재, 철재프레임 등의 재료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나, 2012, 2013, 2014년 작업들의 지배적

Table 3. Young Architects Program - Santiago

Year	Image/ Project name	concept/ contents
2016		Dematerialized dome amplifying spatial experience for the enclosed public hall
		tensegrity structure configured with floating metal tubes, wires and net covering
2015		intervention, uncertainty and deformation effect by the mirrored surface
		the reflective steel plates formed using an abundance of concavities and convexities
2014		inhabitable landscape with wicker sticks to be recycled
		paths through the bundles of wicker lead to four clearings
2013		creating a particular and climatically conditioned environment for cultural program
		30 space frames distributed through a large shaded intermediate space
2012		sensorial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the landscape
		yellow timber paths connecting modular follies in a corn maze
2011		spatial expression of horizontal urban nave made with vertical components
		triangular plastic cone hanging from the frame above fed by a hydraulic irrigation network
2010		dynamic net roofscape experienced under
		colorful fabric net suspended by wooden posts

인 주제로서 조경작업에 천연소재를 이용하여 “환경적” 표현을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이 산티아고 파빌리온 건축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3 로마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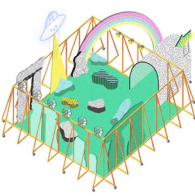





이태리 로마 “MAXXI” 국립현대미술관의 파빌리온

작업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크게 시각적인 표현, 감촉적인 조형, 유희적인 특성 3가지를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각적인 표현의 사용은 거의 모든 설치물들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노랑, 빨강, 초록색과 같은 강렬한 원색의 강조인데 이는 지중해의 기후와 자연에서 비롯된 지중해 문화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2011, 2014, 2016년 작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감촉적”인 조형은 방문객에 의해서 작동되거나 혹은 설치물과 방문객이 양방향 소통의 공감각이라기 보다는 설치물의 어떠한 움직임이나 자극이 방문객에게 전달되는 일방향적 혹은 그 반대방향의 수동적인 공감각을 일으키는 정보전달형 조형언어라 할 수 있는데, 2016년 작업에서의 무대장치적인 조형언어나 2015년, 2011년 작업에서 볼 수 있는 자연경관의 단순한 재현 그리고 2014년 작업에서의 반투명 수직벽 무대스크린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유희성이 강조된 감촉적인 표현은 비교적 전반적인 작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은유적이고 다의적인 상징을 내재하는 작업이라기보다는 일차적이고 감각적인 특성으로 역사적 맥락적 표현의 특징은 다소 결여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4 이스탄불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이스탄불의 근대미술관 파빌리온 설치물들은 2013년과 2015년 두 해의 작업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둘만으로도 두드러진 작업의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근대시기의 문화유산을 주요 개념적 요소나 재료적인 요소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 타이어나 혹은 적재물 팔레트 등의 근대 산업재료를 벤치나 조경, 바닥재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것이나 반사 표면을 가진 금속패널을 캐노피의 재료로 사용하고 또한 근대시기의 산업시설 건축물의 형태를 녹슨 철재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작업들을 들 수 있다. 부가적으로 2013년 당선작인 “Sky Spotting Spot”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역적 맥락으로서의 환경적 개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이나 칠레, 이탈리아의 많은 파빌리온 작업들에서 나타나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 및 가치로서의 환경적 개념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파빌리온이 위치한 “이스탄불 모던” 미술관 앞마당이 바다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맥락적” 표현으로서 환기시키고 있는 개념이며 이 또한 근대산업시기에 주로 이루어진 간척사업 위

Table 4. Young Architects Program - Rome

Year	Image/ Project name	concept/ contents
2016		multiple stage sets filled with childish primordial display of public life
	Temporary School	colorful soft surfacing, simple wood structure stage settings, interactive social network
2015		a portion of natural landscape in an urban setting
	Great Land	vegetation and soil contained in a large rectangular tray
2014		an event stage with pixelated light source wall convey interactive messages
	8 1/2	timber podium and a 8.5m translucent wall made of recycled beer kegs, fabric awnings
2013		aerostatic prism landmark casting light and shadow, dropping water
	He	floating helium balloon interacts with environment and people
2012		a long and sinuous urban furniture stimulating the interaction of the human body
	Unire/Unite	innovative series of sectional plywood structure to be recycled
2011		poetic expression of an artificial landscape
	WHATAMI	expanded polystyrene flowers on the pressed hay and soil covered with natural grass

에 기반하고 있어 전술한대로 이스탄불의 파빌리온 건축들은 근대시기의 문화유산을 주요 개념으로 삼고 “맥락적” 표현을 강조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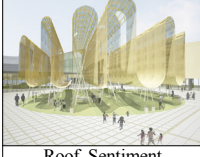

Table 5. Young Architects Program - Istanbul

Year	Image/ Project name	concept/ contents
2015		ephemeral side of architecture. memories of the region's industrial architecture
	ALL THAT IS SOLID	simplified vernacular building frames crunched together made from the oxidized metal frames and shades
2013		shades for sky-spotting spot celebrate the movement and light with poetic wave
	Sky Spotting Spot	reflective metal shades on posts undulating with the waves under the courtyard

3.5 서울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파빌리온 작업들은 방문자들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격의 특징을 지닌 다른 나라의 파빌리온 작업들과는 다르게 머물거나 휴식하는 등의 물리적으로는 최소한으로 참여활동에 개입하면서 동적인 소통보다는 보다 간접적이고 정서적인 교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적인 교감의 효과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작업은 2015년의 “Roof Sentiment”로서 갈대밭로 만들어진 지붕 구조체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로 청각, 바닥에 깔린 소나무조각의 향기로 후각, 바람에 의한 발의 잔잔한 움직임으로 시각적 교감을 감성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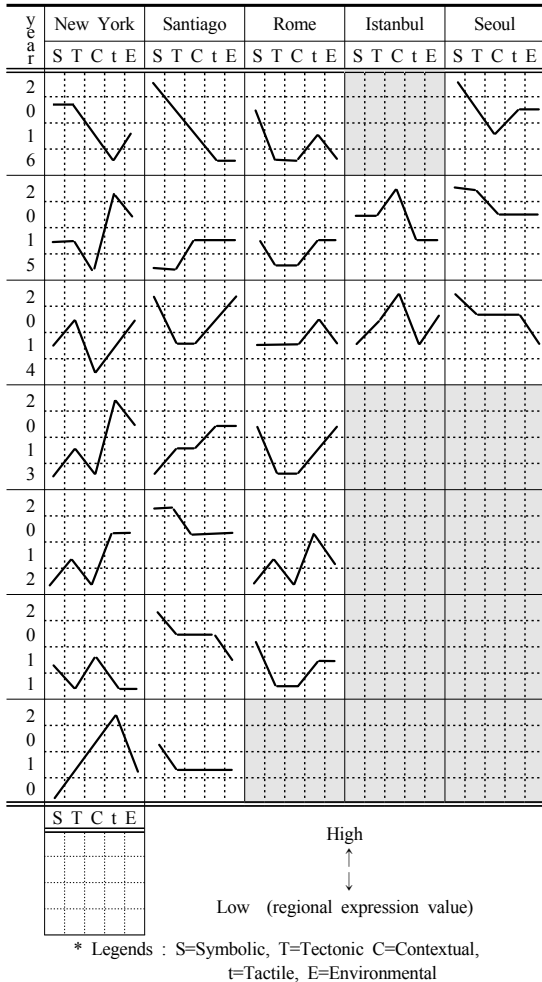
Table 6. Young Architects Program - Seoul

Year	Image/ Project name	concept/ contents
2016		symbolic modern ruin transformed to resting place, contrast to the vernacular architecture neighborhood
	Temp'L	recycled steel parts of an old ship. minimal structural reinforcement and vegetation
2015		metaphoric expression of the roof in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and landscape
	Roof Sentiment	serpentine shaped one large flexible reed blind held up by tall pillars
2014		the experience of Taoist hermits in Korean myth, living on top of artificial cloud, mist and mountain
	Shinseon Play	wooden bridge above balloons swaying by the air pressure changes

또한 전반적으로는 “상징적”으로 지역성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데 2014년 작업 “신선놀음”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전통적인 요소인 신화 속 신선을 주제로 환경을 구축하고 명상에 가까운 정적이고 내재적인 체험을 하도록 하면서 지역성이나 전통성에서 차용된 하나의 경관을 만드는데 주요한 개념이 집중되고 있음을 분석해 볼 수 있다.

3.6 나라별 지역성 표현방식 비교

Table 7. Regional expression comparison on Young Architects Program in five different countries.



3.1절에서 3.5절까지 각 나라 연도별 완성작들의 지역성 표현방식을 5가지 분석기준[표1] -상징적, 구축적, 맥락적, 감촉적, 환경적- 에서 분석을 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그 결과를 도표로 표현하여 보면 [표7]과 같이 몇 가지 나라별 특징을 비교해 볼 수 있다.

4. 결론

각 나라별 젊은 건축가 프로젝트의 파빌리온을 설정된 5가지 대표적 지역성 표현방식에 따라 입체적으로 비교 분석해보면 아래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뉴욕의 경우 5가지 지역성의 표현 방식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환경적 표현과 함께 감촉적인 표현으로서 (7개 중 4개가 보통이상의 높은 수치), 관람객과의 공감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첨단장치들이 사용되었고 반면 상징적 표현과 맥락적 표현은 자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산티아고의 파빌리온들은 상대적으로 돛이나 성당의 네이브와 같은 형태로서의 상징적 표현이 가장 두드러지며(7개 중 5개가 보통이상의 높은 수치) 또한 도심공원이란 위치의 환경적 맥락적 특성이 함께 표현되고 있는 사례들도 상징적 표현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로마의 경우는 맥락적 표현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6개 중 5개가 보통이하의 낮은 수치) 그 외 모든 표현방식에서 낮은 수치를 보임으로서, 로마의 파빌리온 들은 지역성 표현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확인할 수 있는 지역성이 라면 환경적 요인에서 오는 감촉적 표현 이라고 하겠다.

넷째, 이스탄불의 경우는 맥락적 방식으로서 근대산업시기의 가치를 주로 표현하고 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서울의 경우 로마의 경우와 반대로 지역성의 표현방식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상징적 표현방식의 수치가 다른 나라들 보다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산티아고의 형태에 근간한 상징적 표현방식 보다는 간접적인 형식으로서 구축적, 촉각적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파빌리온 건축의 내에서 본 지역성 표현방식 분석으로서 다른 범위의 건축으로서 재검토되거나 다른 파빌리온 건축으로 포괄적으로 분석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ferences

- [1] Pavilion architecture, Encyclopædia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art/pavilion-architecture>
- [2] Young Architects Program (YAP) MOMA,

<https://www.moma.org/calendar/groups/8>

- [3] Mijung Kim, Chan Lee, A study of expressionism characteristics shown in Serpentine gallery pavilio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Spatial Design*, vol. 9, no. 3, pp. 195-207, 2014.
DOI: <https://doi.org/10.14774/JKIID.2014.23.6.195>
- [4] Jung-hun Shin, In-soo Seong, A study on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the contemporary Korean Architecture through the view point of Regionalism - focussed on architecture since 1990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0, no. 2, pp. 497-500, 2000.
- [5] Hyuck-jae Sung, Do-keun Yoon,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theme and expressions of contemporary regional architectur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18, no. 2, pp. 365-370, 1998
- [6] Soon-ok Park, Dae-ho Song, Chun-keun Park,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locality expression in the contemporary regionalism architectur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0, no. 2, pp. 493-496, 2000.
- [7] Seyoung Kim, A study on the sustainable values of regionality shown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 22, no. 5, pp. 126-134, 2013.
DOI: <https://doi.org/10.14774/JKIID.2013.22.5.126>
- [8] Jeongah Kim, A study on the expressionistic feature in designing the interior space of a hotel,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 34, pp. 47-48, 2002.
- [9] Jahee Yun, *Expressionism in Architecture*, 222p, Sejinsha, 1993.
- [10] Hayeop Song, *Pavilion filling the emotions in the city*, p. 252, Hongsi communication, 2015.

서 규 덕(Kyuduhk Seo)

[정회원]



- 1998년 2월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공학사)
- 2005년 6월 : UCLA M.Arch1 (건축학석사)
- 2010년 9월 ~ 현재 :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축설계, 건축계획